

9. 韓國의 甲狀腺機能亢進症의 治療現況

Current Status of Treatment of Hyperthyroidism in Korea

가톨릭醫大 內科

閔炳爽

韓國의 甲狀腺機能亢進症의 治療現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위원소시설을 갖춘 8개 종합병원(서울의대, 연세의대, 경북의대, 고려의대, 부산의대, 가톨릭의대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8개 종합병원의 가동 병상수는 약 3,000으로 전국 수련병원 병상수의 약 1/3, 전국 일반병원 병상수 18,000의 약 1/6이 된다. 이들 8개 종합병원은 전국 동위원소시설을 갖춘 병원의 가동 병상수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는 8개 종합병원에서 1962년부터 1972년까지 11년간 ^{131}I 을 이용한 갑상선기능검사수는 17,811에이며, 이중 1972년에 취급된 것은 3,103에이다.

이들 8개 종합병원에서 같은 11년간에 ^{131}I 로 치료된 甲狀腺疾患(주로 甲狀腺機能亢進症)은 3,704에이며, 1972년에 치료된 것은 569에이다. 이들 8개 종합병원에서 1972년에 취급된 外科의 甲狀腺 포본은 292에이며 이중 Graves 병은 14에(4.8%)이다.

이상 치료로 1972년 현재 전국 주요종합병원에서 취급되는 甲狀腺疾患은 연간 약 5,000~6,000에이고 甲狀腺機能亢進症은 약 1,500에, ^{131}I 로 치료된 것은 약 700에, 外科적으로 치료되는 甲狀腺疾患은 연간 약 500에, 이중 甲狀腺機能亢進症은 약 25~50에에 달한다.

10. 甲狀腺機能亢進症에 대한 ^{131}I 治療 후의 遠隔成績

Follow-Up Result of ^{131}I Therapy for Hyperthyroidism

가톨릭醫大 內科

閔炳爽·金東集·崔斗革

放射線科

朴龍輝

1962년부터 1972년까지 11년간 가톨릭의대 甲狀腺診療室에 등록된 甲狀腺機能亢進症(Graves 병)은 490에이며 이중 345에(70.5%)가 ^{131}I 치료를 받았으며, 47에

(9.6%)가 外科의 치료를 받았다.

^{131}I 치료량은 甲狀腺 gm 당 75 uci (평균 약 5,500 rads)이었다. 전예의 71%가 6개월 이상, 55%가 12개월 이상 추적되었다.

추적된 ^{131}I 치료군의 74.5%에서 치유 또는 경쾌되었으며, 25.5%에서 무효 또는 악화되었다. 前者의 79.5%가 1회의 ^{131}I 치료로써, 17.8%가 2회의 2.8%가 3회이상 5회이 ^{131}I 치료로써 경쾌되었다. 따라서 단 1회의 ^{131}I 치료로써 甲狀腺機能亢進症이 개선될 確率は 60%이다.

^{131}I 치료후 345예중 18예(5.2%)에서 甲狀腺機能低下症이 생겼다. 1년 이상 추적된 예만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甲狀腺機能低下症의 발생빈도로 8.4%, 2년 이상의 경우에는 12.0%, 3년 이상의 경우에는 15.8%, 4년 이상의 경우에는 14.7%, 5년 이상의 경우에는 14.3%이었다.

11. Graves' Disease 患者에 있어서 Vitamin B₁₂의 대사

Metabolism of Vitamin B₁₂ in Graves' Disease

가톨릭의대 내과

최두혁·김준추·김동집·민병석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가졌거나 thyroactive material 을 먹었던 동물에서 vitamin B₁₂치의 요구량이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에서도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가진 환자에 있어서 혈청 vitamin B₁₂치가 낮으며 또 외부에서 공급된 vitamin B₁₂도 빨리 소모되고 있는데 이는 갑상선 기능항진증 때 동반되는 일반적인 대사항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악성빈혈 환자가 자기 면역질환으로 생각되는 질환 즉 하시모도 갑상선염 및 Graves' disease 가 자주 합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intrinsic factor 및 parietal cell 에 대한 항체가 혈청중에서 발견되고 있다. 가톨릭의과대학 부속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Graves' disease 환자중 T₄치가 증가되고 thyroglobulin 에 대한 자기항체가 증명되었던 5명에서 ^{57}Co -vitamin B₁₂를 사용하여 흡수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Graves 병 환자에서 평균 20.8% (범위 6.9~33.9%)가 24시간동안에 소변에 배설되어 정상인 4명에서의 평균 23.8% (범위 21.8~25.4%)에 비해 별다른 차이는 없는 인상을 주나 Graves 병환자 1명에서 6.9%로 떨어져 있었는데 혈색소는 11.0g/dl, MCH 29.7 picogm, MCV